

## 전방 소절개와 측방 소절개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의 비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성연 · 김지효 · 전재명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술식 중에서 소절개 봉합술은 흔히 측면의 소절개를 사용하여 삼각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삼각근의 훼손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전방 소절개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전방 소절개에 대해서는 문헌 보고가 없었으며, 또한 측방 소절개와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보고도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방 소절개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식을 소개하고, 이러한 술식과 측방 소절개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측방 소절개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예 중에서 1년 이상 추시된 35예를 제 1군으로 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 2003년 3월 까지 전방 소절개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예 중에서 1년 이상 추시된 38예를 제 2군으로 하였다. 제 1군의 나이는 평균 55.6세이었으며, 제 2군은 평균 58.3세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환 기간 또한 각각 평균 26.1 개월과 21.4 개월로 비슷하였으나, 추시 기간은 제 1군은 28.8 개월이었으며 제 2군은 16.2 개월이었다. 제 1군에서는 부분층 파열이 7예, 소파열은 11예, 중파열이 13예, 대파열은 4예였었으며, 제 2군에서는 부분층 파열이 7예, 소파열이 3예, 중파열이 11예, 대파열이 14예, 광범위 파열은 3예가 있었다. 결과는 ASES sco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1군의 결과는 평균 94.8이었으며, 제 2군의 결과는 평균 97.7로 큰 차이는 없었다. 제 1군은 평균 47.3 점 호전되었으며, 제 2군에서는 평균 48.2 점 호전되어 큰 차이가 없었다. 제 1군 및 제 2군의 모든 예에서 수술 전에 비해 호전을 보였으나, 제 2군의 두 예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중 한 예는 회복이 불안전하였으며, 다른 한 예는 재파열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전방 소절개를 이용하여 삼각근의 훼손이나 액와 신경 손상의 염려가 없이 회전근개 봉합술이 가능하였으며,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의 일부 까지도 회전근개의 봉합이 가능하였다. 측방 소절개의 삼각근 분리는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았으나 전방 소절개를 이용하면 소절개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의 적응증을 보다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회전근개 봉합술의 결과는 수술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호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